

# 유대인 선교단체

Jews for Jesus Newsletter: Korean Edition

June 2005. Printed in Sydney Australia

같은 길에서 만난 두 사람 - 데이빗 브릭너, JFJ 총 책임자

샌프란시스코의 변화가에 있는 파월 가와 마켓 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지하철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의 바로 위쪽에 서 있을 때였다. 무척 무더운 날씨였다. 거의 두 시간 가량을 그곳에 서 있었기에 노방전도를 끝내고 거의 갈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몇 분 더 있기로 했다. 그때 마침, “참 상냥한 사람이군” 생각이 들게하는 따뜻한 웃음을 띤 “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나를 향해 걸어 온 것이었다. “Jews for Jesus(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라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또한 유대인입니다.”라고 나는 되받아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선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구세주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러한 첫 대화를 반기지 않겠는가?! 브루클린의 카나르지라는 지역의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샘은 진심으로 답을 찾는 중이었다.

“당신은 유월절을 지키며 자랐습니까?”라고 나는 물었다. 조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매년 지켰죠”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애굽인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그 재앙을 모면하였는지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물론이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었죠. 문에 핏자국에 있는 집마다 재앙이 건너갔죠.”

“바로 그겁니다!” 하고 나는 거의 외치듯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언젠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한다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고 샘은 대답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있었다. 나는 계속하여 몇 분 동안 더 그에게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얼마 후에 샘은 나와 함께 예수님을 그의 어린 양과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기도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유대인 선교단체의 국내 선교사 중 한 명이 샘과 연락을 유지하며 제자로 양육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나도 개인적으로 샘이 지역 교회에 다니며 세례받기를 권유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가끔 Jews for Jesus의 특별 행사들에 참석하곤 한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기도했던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 만큼은 아니다. 샘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서서만 아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에 근거해 다른 사람들의 전도 활동에 대해 이른바 “결정 신학”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에 대해 조롱적으로 이야기 한다. 다시 말해, 전도

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앞으로 새 신자로서 순종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단순히 회개와 영접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그래함의 전도집회에서 결신자들을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든 길거리 전도에서 누군가와 기도를 하는 것이든, 이러한 전도 방법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물론 구원이란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흔히 “영접 기도”라 불리는 것을 함으로서 표면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권유한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마음”이다.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주님을 영접하기로 기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확실히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양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구원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신기하고, 힘있고, 놀라운 신비에 속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참여가 짧은 것이든,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것이든을 떠나서이다.

지난 1월 나는 우리 런던 팀원들과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전도지들을 나눠주고 있었다. 늦은 오후 겨울날의 차가운 어두움이 벌써 도시를 덮고 있었다. 통근자들이 따스한 집으로 가고자 내 앞을 급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멈추어 서서 나에게 악수를 하고자 손을 내밀었다. “데이빗 브릭너씨?”, 하고 그는 물었다.

“네, 맞는데요.” 하고 나는 조금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리오입니다.” 하고 그는 되받아 말했다. 그 순간 번뜻 생각이 나며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던 리오 말인가요?” “11년 전이었죠.” 하고 그는 확인시켜주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리오가 내게 다가온 것은 내가 파빌가와 마켓가의 모퉁이에 서 있을 때였다. 그의 행운은 모두 끝났으며 관광 비자 기간은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비자가 없기에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도 다 떨어져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막 쫓겨난 상황이었다. 나는 리오에게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시켜주었다.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자 리오는 놀랍게도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였다. 그는 길 모퉁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내가 훗날 언젠가 샘과 함께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 길의 바로 건너편에서.

당시 내가 리오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에게 포켓판 신약성서와 샌프란시스코의 내 연락처를 적어 주었다. 본인 자신은 나에게 남길 수 있는 주소가 없었다. 나는 팀에게 이것을 전도 열매로 보고하지 않았다. 리오의 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확인하거나 쫓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리오?” 하고 나는 물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는 그 일 이후 런던에 다시 돌아가 아주 좋은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활동적인 교인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리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며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같은 길의 서로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한 명은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도했던 그때로부터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 다른 한 명은 반면에 그 후 우리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활짝 피고 성장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샘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는 그를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은혜의 신비스런 역사에 한 부분적으로나마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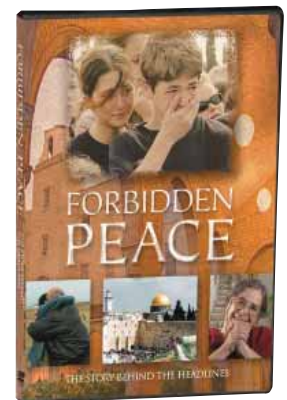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삶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며 결과는 위대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금지된 평화”

이번달엔 독자들에게 “금지된 평화”를 추천합니다. “금지된 평화”는 이스라엘에서 촬영된 매우 흥미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란 로센블리트와 팔레스타인 사람 타이서 아부사다와 같은 이들에게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평화란 가능할까?” 이 두 사람에게엔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쓰라리고 오랜 증오를 끝낸 이 평화는 정치적인 해결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예수, 이 평화의 왕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과 그 외의 많은 이들이 이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는 당신이 직접 보고 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8페이지를 보세요. DVD나 VHS 형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곳 호주와 호주 본부에서 구입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다른 종류



## 유월절에 대한 몇 가지 상식

유월절은 4월 23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흔히 유월절을 히브리어 단어인 Pesach (페이소크)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구속절(Feast of Redemption)이라고도 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절기의 이름은 희생양의 명칭을 따라 붙인 것이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가정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어린양에 관련한 하나님의 지시를 신실히 따른 자들에게는 재앙이 피해갔다. 어떤 이들은 유월절을 가리켜 무교절이라 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직후의 7일 동안은 누룩이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레위기 23:5,6은 니산(Nisan)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와의 유월절과, 15일 날 시작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을 구분해준다.

당신의 유대인 친구에게 4월 23일 날 시작되는, 누룩을 먹지 않는 그 8일 기간의 바로 직전이나 또는 그 중에 유월절 카드를 보내는 것은 참 적당한 행동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23일이나 24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세이더(Seder)라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세이더는 유월절의 사건들을 되새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과 낭독문을 통해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이다.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바로 유월절 세이더였다. 바로 세이더의 의식을 거행하시던 중, 전통적으로 유월절 어린양의 살과 피와 연관이 지어지는 빵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하신 것이다. 세이더의 먹는 부분은 흔히 무교병 경단 (Matzo ball)과 수프로 시작되는 맛있는 진수성찬이다. 이 수프는 닭 국물이며 무교병 경단은 누룩이 안 들어간 만두이다. 무교병 경단은 크네이드라크(knaidlach)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양인들에게 닭국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유대인 스타일의 닭국을 소개한다. 무교병 경단을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조리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이 조리법은 우리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Melissa Moskowitz의 The Jews for Jesus Family Cookbook의 166쪽에 나온 것이다.)

달걀 6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약간의 후추 (또는 티스푼의 1/8정도)

닭 기름 녹인 것 큰 수저로 2 수저 (닭 기름이 비위에 안 맞는다면 마가린으로 대체해도 됨)

누룩 없는 밀가루 한 컵

달걀 흰자를 뽀뽀해 질 때까지 휘젓는다. 노른자는 따로 휘젓는다. 노른자에 소금과 후추와 녹인 기름을 넣는다. 이것을 흰자에 부드럽게 섞어준다. 누룩 없는 밀가루를 한 수저씩 넣어가면서 섞어준다. 그리고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 둔다. 손을 축축하게 한 후 반죽을 호두 정도 크기의 경단들로 만든다. 펄펄 끓는 닭국물에

## 유월절의 감사

금년도 유월절 순회 행사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난해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JFJ의 오스트랄라시아 대표 밥 멘들슨이 2005년도 또는 2006년도 초에 서울을 다시 방문해 여러 교회에서 “유월절이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에 대해 강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스태프 중의 한 사람인 리처드 물러가 보고한 것입니다:

“위니펙에서의 유월절 강해 순회중 가장 신이 났던 일은 아미카이 (줄여, 아미)라는 젊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미는 위니펙에서 5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크리스천 친구와 함께 이미

대학에서와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기독교 모임들에 참석한 바가 있었으며 제 두번째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후 아미는 내게 다가와 내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질문했으며 우리는 꽤 뜻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일 후 나는 아미에게 전화를 했으며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나는 아미에게 복음을 설명했으며 그가 가진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발견하도록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몇 일 동안 그 고장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성경을 하나 구입했으며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위니펙에서의 나의 마지막 저녁에 나는 그를 또 한번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열심히 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돌아온 이후로 나는 계속 아미와 전화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달에 여러번 통화하며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미가 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스태프인 린 본드가 보고한 것입니다: “나는 2년 전 교통사고 때 당한 부상들 때문에 아직도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알란이 강해 순회를 하는 동안,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성



이니 함께 가자고 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교회에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거기 있던 몇 분 안되어 아름다운 한 여자가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은 로우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Jews for Jesus의 창시자가 산 호세에 어느 교회에서 강의할 것이라는 광고지를 집 우편함에서 받은 한 친구로부터 초청을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광고지를 마치 입장권이라도 되듯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녀에게 인사한 후 본인은 목사님과 얘기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기도하기 위해 그녀를 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로우렛은 흥미 진지하게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남편론(신실한 천주교 신자인)이 예배가 시작했다고 얘기해 줄 때까지 활발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나는 앞좌석에 앉고(아빠에게 웃어줄 수 있는 좋은 위치이죠) 그들은 뒤쪽으로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로우렛이 수표책을 손에 들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Jews for Jesus의 사역에 기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사역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며 그녀가 내 말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그녀에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녀로부터 무엇을 가져가기 보다는, 그녀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만약 동의한다면 기도 끝에 “아멘”하고 응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뜻하죠.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수표를 써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고 있자 아빠는 괜찮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쓰신 책, “유월절이 나타내 주는 그리스도”를 사인하고 로우렛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교회 밖에

광고지를 로우렛에게 전해준 크리스천 친구분에게 감사합니다. 로우렛이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해주세요.”

뉴욕 스태프인 캐롤 조셉이 지난해의 유월절 축제에 대해 보고한 것입니다:

“리사라고 하는 한 젊은 유대인 여성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 애나 마리와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나 마리는 그녀가 우리 유월절 잔치에 참석해 나를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잔치에 왔고 우리는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리사는 예수님에 대해 한 일년동안을 생각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스스로 아직 자신이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죄 사함과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냐고 묻자 그녀는 무척 흥분했으며... 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감사에 감사를 거듭했습니다.

세이더(Seder: 유월절 밤 축제)가 끝나갈 쯤 조쉬 소페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 한명의 유대인 여인, 브렌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좀 있다 그녀에게 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믿고 있으며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다시 만날 것을 아주 원했습니다.

나는 유월절 축제 이후 그 두 여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브렌다는 얼마 동안은 만나는데 열심을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연락하였을 때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다며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로서 최근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받으실 쯤에는 그녀는 우리 워싱턴 D.C. 지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과 연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곳저곳에서의 소식

### 로스앤젤레스

시릴 고르돈이 보고합니다: “조나단이라는 한 젊은 유대인 남자는 어릴 때 주님을 영접했었으나 십대 때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교에 빠짐으로써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4년 동안 유대교를 따랐었고 조나단이 겪고 있는 신앙적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시작한 두 달이 지나 조나단은 다시금 그의 인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조나단이, 특히 이제 복음을 그의 유대인 친구들과 랍비들과 나누고자 하는 위치에서, 신앙적으로 계속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토론토

칼 데수사가 보고합니다: “나는 무조건 전화 번호부에 나와있는 ‘A’로 시작되는 유대인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며 아무도 답하지 않는 경우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떠한 Mrs ‘A’라는 사람이 오후 늦게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녀는 내가 남긴 메시지를 듣고 답 전화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Mrs A는 내게 그녀는 84세이며 이제 자신을 바꾸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shul(시나고그)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읽겠노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을 적어둘게요.” 그녀는, “당신이 하는 일들이 잘되며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일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라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역사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멜번

2월과 3월 동안에 걸쳐 있었던 Operation Behold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보라” 사40:9) 캠페인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밥 멜들슨이 보고합니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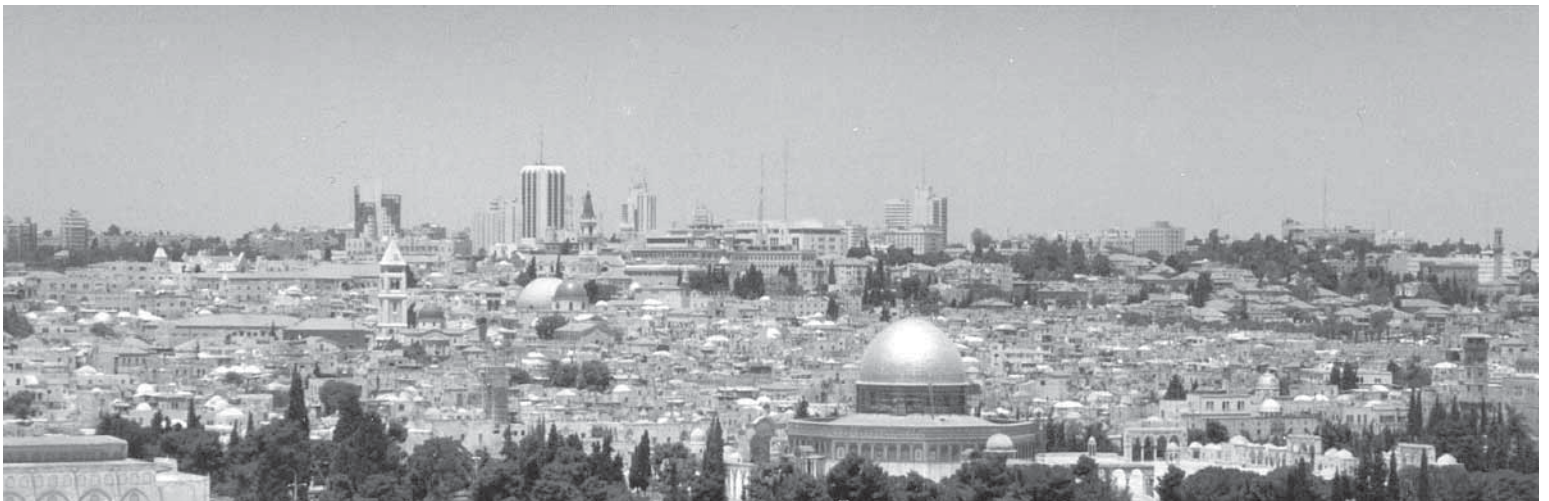
는 125,000가 넘는 전도지들을 나눠주었으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0명 가량의 문의자들이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내용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중의 47%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지역에서 찬양 행진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신문지와 라디오 방송국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대화로 떠들썩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고판들을 통한 우리 광고들을 보았으며, 반달들에 의해 광고판 중 하나가 손상되었을 때 이것마저 뉴스거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호주인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 이 캠페인을 통해 접촉하게 된 영혼들과 지속적인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워싱턴 D.C.

스티븐 즈가 보고합니다: “레리 두빈과 나는 DC 유대인 문화센터에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Jews for Jesus와, 또한 유대교를 주장하는 유대인들(Jews for Judaism)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균형있고 볼 가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에 이어 문화센터의 관리자와, Jews for Judaism의 볼티모어 이사 스코트 힐먼과 함께,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객 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Jews for Jesus가 왜 우리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귀찮게 주기를 이 지역 Jews for Jesus의 책임자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사회자와 스코트 힐먼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키에프

톨릭 에마의 보고입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지해 두었던 리스트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리스트의 사람들은 방문을 거부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어머니가 유대인인 타티아나였습니



다. 그녀가 만나기를 거부해 왔던 것은 어머니께서 수년간 아파서 침대에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만나고자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연락을 했을 때 그녀는 반가운 목소리로 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즉시 알았으며, 6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 바로 믿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례까지 받았으며 신앙의 확신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엔 내 노력에 대한 아무 결과를 볼순 없었지만, 타티아나에게 계속 관심을 보여줬었던 것이 참 기쁩니다. 그녀가 영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레터를 읽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편지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에 대한 질문이어도 좋고 또는, 봄 멘들슨 씨가 독자분께서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 2006년도에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봄 멘들슨 목사님께서 한국을 다시 곧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으시다면 밑의 방법들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

Jews For Jesus

PO Box 925

Sydney NSW 2001 AUSTRALIA

[mail@jewsforjesus.org.au](mailto:mail@jewsforjesus.org.au)

[www.jewsforjesus.org.au](http://www.jewsforjesus.org.au)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또는 위 주소로 수표나 우편환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구좌 내용:

National Australia Bank

BSB # 082.067

Account # 46-072-8465